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6.6.10.(수) 07:0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홍보디자인부	책임자	부장	이시종	032-290-2045
		담당자	대리	김동현	032-290-2014

“세종의 꿈, 프랑스에 닿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프랑스서 한글 교류전 개최

- 7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展 개최
- 프랑스 피작시(Figeac, France) 상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에서 개최
- 문자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오는 7월 3일(금)부터 10월 11일(일)까지 프랑스 상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에서 해외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Hangeul, la volonté d'un roi)>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전으로, 한글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다. 또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해외에서 선보이는 첫 교류전으로, 국제 협력 행보를 본격화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상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은 프랑스 피작시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문자 전문 박물관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는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24년 한국에서 첫 교류전을 개최했으며, 이번 전시는 양 기관 협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 ‘한글’

프랑스 현지 전시 제목은 <Hangeul, la volonté d'un roi>로, 직역하면 ‘한글, 한 왕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백성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목이다.

문자는 인류가 생각과 지식을 기록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온 핵심 도구다. 15세기 조선에서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 뜻에서 탄생한 문자가 한글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인쇄문화에서 출발해, 조선시대 문자문화와 한글의 창제, 오늘날 한국인의 삶 속에 자리한 한글

의 현재까지 폭넓게 조명한다. 또한 한글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문자를 통해 이어진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 역사도 함께 소개한다.

<훈민정음>에서 불어판 <춘향전>까지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 및 한글 관련 유물이 다수 공개된다. 특히 <훈민정음> 영인본은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려 했던 세종대왕의 뜻을 프랑스 관람객들에게 전하는 대표 전시품이다. 이 밖에도 <불설대보부 모은중경>, <오륜행실도> 등 한글을 통해 지식과 생활문화를 확산시킨 자료들이 함께 소개된다.

아울러 프랑스 내 주요 한국 문화 소장기관인 국립기메동양박물관, 프랑스 언어문명대학도서관, 케브랑리 박물관 등의 협조를 받아 <Printemps Parfumé(불어판 춘향전)>, <한불사전>, <백자투각연환문필통>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전통 유물에만 머물지 않는다. 패션, 캘리그래피, 공예, 디자인 등 현대 시각문화 콘텐츠도 함께 소개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살아 있는 문자문화로서 한글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소통의 문자 ‘한글’, 세계를 잇다

한글은 15세기 창제 이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학적 문자 체계로 평가받는다. 한글은 종교·문학·생활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근대 이후에는 국민적 소통의 기반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한글의 확산은 국제 교류와도 맞닿아 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번역·출판된 한국 문학 작품과 사전류는 한국 문화를 유럽에 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 간 문화 이해를 넓히는 출발점이 됐다.

이번 전시는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문자를 매개로 이어져 온 문화교류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김명인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도구이자 문화 교류의 가교임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문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을 세계 속 문화자산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 시 명: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Hangeul, la volonté d'un roi)
- 기 간: 2026. 7. 3.(금) ~ 10. 11.(일)
- 전시장소: 상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프랑스 피작시)
- 전시주제: 문자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 전 시 품: <훈민정음>(영인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Printemps Parfumé>(불어판 춘향전) 등

- 붙임 1. (참고) 설명자료
2. 전시품 사진

□ 전시 구성

- (1부) 활자의 나라, 한국
 - 한국 인쇄문화의 형성과 발전 소개
- (2부) 문자의 나라, 조선
 - 문자와 삶이 어우러진 조선시대의 역사를 소개하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발전에 대해 조명
- (3부) 오늘을 쓰는 문자, 한글
 - 15세기 창제된 한글은 단순한 역사적 유산을 넘어, 현대 한국인 일상 및 문화 전반에 자리 잡은 문자임을 소개
- (4부) 문자, 두 나라를 잇다
 -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문자'를 통해 조명

□ 상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 소개

- 공식명칭: Musée Champollion-Les Écritures du Monde
- 설립연도: 1986년 설립(당시 대통령인 프랑스와 미테랑에 의해 추진) 2007년 상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
- 위 치: Pl. Champollion, 46100 Figeac, France(프랑스 피작시)
- 소 개: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한 Jean-François Champollion의 생가를 박물관으로 개관. 상폴리옹을 기념하는 동시에 세계문자 체계의 역사와 발전을 소개하는 전문 박물관. 세계 최초의 문자 전문 박물관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자와 기록 문화를 통해 인류 문명의 흐름을 조망함
- 홈페이지: <https://musee-champollion.fr/>

붙임 2

상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 전경 및 주요 전시품

□ 상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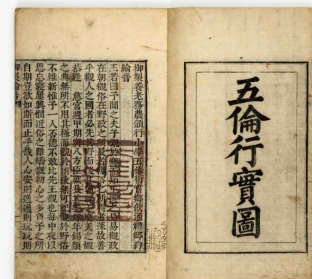


□ 주요 전시품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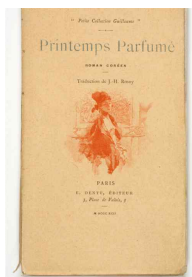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조선 1796년, 22x34cm,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오륜행실도

1797년 조선, 19.2x32.0cm, 국립세계문자박물관



Printemps Parfumé (불어판 춘향전)

1892년, 8x13.3cm,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